

'값 폭락 나주배' 정부가 수매 나서야

"냉동 저장시설 태부족... 판로 확보 안되면 썩힐 판" 생산량 30% 출하 그쳐... 추석 이후 가격회복 불투명

'나주배'가 가격 폭락에도 판매 부진으로 경매가 중단되는 등 향후 판로마저 불투명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본보 10일자 1·3면 보도> 나주배조합은 배 가격이 지난해 대비 50% 이하로 폭락했는데도 매수세가 형성되지 않아 10일 오후 2시 경매를 중단했다.

이는 매년 추석 전까지 활발하게 경매가 이뤄졌던 것에 비해 이례적인

경우다. 나주 배 재배농가들은 매년 생산량의 70% 가량을 추석 대목때 판매했으나 올해는 소비 감소로 30%밖에 출하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나주지역에서는 연간 6만 5천톤 가량의 배를 생산해 추석 성수기때 4만 5천톤 정도를 출하하고 남은 물량은 냉동창고 등에 저장한 뒤 설 명절 때 판매 왔다.

그러나 추석 이후에도 판로 확보가 불투명해 농민들이 예저 생산한 배를 썩힐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대부분 배 재배농가들이 냉동 저장시설이 없어 홍수 출하가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올해 나주배가 과잉 생산돼 기존 냉동시설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충청도와 경기도 등 여타

배 주산지 물량이 쏟아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처럼 가격이 폭락한 만큼 내년 설 대목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모(여·67·나주시 석현동)씨는 "내년 설 대목에도 가격이 회복된다는 보장이 없어 상자 당 2천500원의 냉동 보관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출하를 미루기 어렵다"며 "조속히 정부가 수매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배 재배농민들에게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확한 생산량과 판매량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올림픽 금주현정 팬 사인회 베이징올림픽 여자양궁 단체전 금메달리스트인 주현정 선수가 지난 9일 고향인 곡성군을 방문, 곡성군청에서 열린 환영행사에 참석한 후 팬사인회를 갖고 학생들에게 사인을 해 주고 있다. <곡성군 제공>

장성 에티켓 우수 동호인 강원석·김은정 씨 선정

<강원석씨>
장성군 문화센터가 실시한 에티켓 실천운동에서 상반기 우수 동호인으로 배드민턴 동호인 강원석씨와 탁구 동호인 김은정씨가 각각 선정됐다.

이들은 각 동호인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으며 지난 7월부터 중점 추진해온 에너지 절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했다.

/장성=장필수기자 bungy@

해남군, 서울사무소 개소

해남군이 수도권 종합마케팅의 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서울사무소를 개소한다. 해남군은 "오는 16일 서울사무소를 개소하고 국비 예산 확보 및 지역 우수농수산물 판촉 등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5일 해남 향산향우출신으로 민주당 농수산전문위원과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낸 박경경(47)씨를 서울사무소장으로 임명했다.

해남군 서울사무소는 앞으로 국비에 산화보를 비롯해 지역 현안사업 반영 등 중앙정부 관련 업무를 맡게되며 수도권 출향인사와 협조체계를 구축, 농수산물 판촉 등 수도권을 상대로 적극적인 군정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곡성군 농기계 수리·효사랑·쿨기동 민원 통합 확대 서비스

주민생활 'UP'

곡성군이 분야별로 따로따로 제공하던 주민생활 관련 서비스를 통합해 운영한다.

곡성군에 따르면 농기계 수리, 효사랑 봉사(사진), 쿨기동민원 등 그동안 분야별로 따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한데 묶어 다음달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일명 '주민생활 통합서비스'인 이 사업은 공급자 위주이던 주민생활 관련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곡성군은 이를 위해 주민생활복지과, 민원세정과, 방문보건사업팀 등 관련 부서 실무자 12명으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고 현장실사단을 구성, 서비스에 들어가기로 했다.

군은 매주 한차례(수요일)씩 현장실사단을 마을에 보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민원 처리, 건강상담, 농기계 수리, 재가봉사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주민생활 통합서비스는 지난 3일 오산면 가곡마을에서 처음 실시됐으며 10일 결명철봉에서 2번째 서비스가 실시됐다.

곡성군 주민생활복지과 최광주과장은 "공무원들이 마을에 찾아가 한 곳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주민들의 민원 만족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곡성=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한가위 송편 빚어보세요

전남도 농업박물관 13~14일 체험행사

전남도 농업박물관(관장 강석오)이 오는 13·14일 이틀간 박물관 야외 초가집에서 '한가위 송편빚기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체험행사는 고유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고향을 방문한 귀성객들과 도시민들이 고향과 농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다.

농업박물관은 행사 기간 동안 팔 송편, 깨 송편, 밤 송편, 잣 송편, 돈부 송편 등 5가지 종류의 송편 재료를 미리 준비해 두고 관람객들이 직접 송편을 빚고 쪄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사진)

또 농업박물관은 추석 연휴기간(13~15일)에 한복을 입고 입장하는 관람객은 무료 입장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

'남도의 맛' 산업으로 키운다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조례'가 제정돼 전남지역 고유의 남도음식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기대된다.

전남도의회는 10일 열린 제 2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황병순 도의원이 발의한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남도 맛 산업 정책을 통해 지역 농어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책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도 맛 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해 농수산업, 관광산업과 연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친환경 농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과 식생활문화 개선운동도 추진하도록 했다.

또 남도음식을 체인화해 전국 가맹점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지역 농수산물의 제조·가공산업을 발전시켜 유통망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남도의 맛과 멋을 대표하는 '남도 맛 명가' 지정 제도 도입과 남도 맛 산업의 연구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나비·곤충 생태관 등 새단장 함평엑스포 공원 상시 개방

지난 4월18일 개막돼 45일간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가 열렸던 함평 엑스포공원이 상시 개방됐다.

함평군은 엑스포공원에 대한 시설물 정비와 보완, 조례 제정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지난 6일부터 일만에 개방했다.

새로 문을 연 엑스포공원은 엑스포 행사 기간에 운영했던 관람시설 대부분을 유지해 평상시에도 일반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탁 트인 자연에서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습지학습장과 국내 최초 테마파크형 곤충전시관인 숲속의 곤충마을, 순금 162kg(55여원)으로 제작된 국내 최대 황금박쥐 조형물이 전시된 황금박쥐생태관 등이 눈길을 끌고 있다.

또 애니메이션 '아하! 나비구조대'가 상영되는 주제상영관과 나비·곤충생태관, 국내외 450종 7천여마리의 나비·곤충 표본을 연출한 나비·곤충 표본생태관, 나비·곤충 화석전시관, 한국 토종민물고기 전시관 등의 볼거리와 함께 놀이동산 나비랜드도 인기있는 체험학습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엑스포조직위원회는 엑스포공원을 사계절 내내 꽃이 만발하는 아름다운 종합생태교육장으로 만들고 물분을 유지해 평상시에도 일반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엑스포공원 활성화를 위해 함평천 생태학습장에서 주말마다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함평군은 이달 말께 각계 전문가와 언론,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엑스포공원 활용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함평=박진표기자 pjy4079@

담양 이장 연합회 발족 사회 봉사 결의

담양의 마을 이장들이 연합회를 결성, 지역사회에 봉사하기로 결의했다.

담양군 이장연합회는 10일 담양 문화회관에서 박준영 전남지사와 이정섭 담양군수, 김효석 국회의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원기(담양읍 단장) 회장을 비롯, 이원휴(창평면 단장)·김용각(대덕면 단장) 부회장 등 2년간 연합회를 꾸려갈 임원진이 선임됐다.

담양군 관계자는 "연합회는 관내 299개 마을 이장들의 모임으로, 군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과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장필수기자 bungy@

무안 - 광주(통산, 구화산) 무안공항 직항 전세기

무안 - 장사(장가게, 환가게) 무안공항 직항 전세기

* 공항 주차장 무료이용

* 개인 차에의 만족도를 주는 광주 MBC 문화여행 상품입니다(www.kjmbc.co.kr)

* 기존의 예치 상품과 차이가 있습니다

무안-광주(통산, 구화산) 직항 전세기	무안-장사(장가게, 환가게) 직항 전세기
<p>무안-광주(통산, 구화산) 직항 전세기 / 1박 2일 / 1인당 420,000원</p> <p>무안-장사(장가게, 환가게) 직항 전세기 / 1박 2일 / 1인당 580,000원</p>	<p>무안-광주(통산, 구화산) 직항 전세기 / 1박 2일 / 1인당 420,000원</p> <p>무안-장사(장가게, 환가게) 직항 전세기 / 1박 2일 / 1인당 580,000원</p>

다들 여기까지 갔어! "광주MBC 문화여행" - 송 차장입니다

광주 MBC 문화여행 광주/전남 북 유영여행사 ☎ 문의 062-226-8070